

농협, 농작업 대행 확대 적극 추진 나선다



▲농협 제공

수확·경운 등 ‘벼 수확 시연회’ 개최

농협(회장 강호동)은 17일 세종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일대에서 강호동 회장,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관내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수확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작업 대행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벼 수확 ▲

경운 ▲방제 등의 농작업을 시연하였으며, 스마트농기계와 농자재(비료, 농약, 시설자재) 등이 전시되었다. 농협은 '24년 222개 지역농협이 참여해 145만ha의 직영 농작업대행과 39만ha의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일환으로 직영 농작

업대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육묘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직영 농작업대행 확대 ▲작기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농업 현장 스마트화 가속 등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심천심(農心天心) 정신으로 농업인을 최우선에 두고 어려운 농업·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겠다”면서 “직영 농작업대행 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 소득 증대와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신도불이와 농도불이 운동을 계승 발전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기찬 농촌을 가꾸어 가는 범국민 실천 운동을 말한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전남농기원, 장립종 쌀 소비 확대 홍보행사 개최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내에서 자체 육성한 장립종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2025국제농업박람회(전남 농업기술원 운동장)에서 특별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복GO 짝GO 받GO #장립종볶음밥챌린지’를 주제로, 관람객이 직접 장립종 볶음밥을 맛보고 SNS 이벤트와 현장 선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볶음밥에 최적화된 장립종 쌀의 특징인 길쭉하고 고슬한 밥알과 우수한 소화성을 관람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행사 기간 푸드트럭을 운영해 하루 약 1,000명에게 장립종 볶음밥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며, 일회용품 대신 쌀과자 용기를 활용해 환경보호 실천의 의미도 담았다.

또한 SNS 해시태그 챌린지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장립종 미니쌀팩(300g)과 레시피를 증정해, 행사 이후에도 가정에서 장립종 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막식 당일(23일)에는 방송 활동으로 잘 알려진 송보라 세프가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장립종 쌀을 활용한 특

별 볶음밥 메뉴를 선보인다. 세프의 조리 시연과 현장 시식은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 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남 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장립종 벼(전남농기원 제공)

보이지 않는 습격, 잿빛 곰팡이 병 관리하세요

10월 하순 온·습도 차로 시설 작물에 다발생

아침, 저녁 기온이 내려가면서 시설재배 작물의 온실환경 관리가 중요해진다. 하우스 안팎 온도 차이로 내부 습도가 높아져 각종 병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특히 잿빛곰팡이병은 10월 하순에 온도·습도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시설작물 대부분에 발병할 수 있고 잎·꽃·줄기·과실 모두 쉽게 감염돼 대응이 늦어지면 소득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방제가 필수적이다.

▲ 시설재배 최대 골칫거리, 잿빛곰팡이병 방제법!

잿빛곰팡이병은 주로 높은 습도와 큰 일교차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환기나 난방을 통해 습도를 낮추고, 낮과 밤 사이의 온도 차이를 완화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저녁 무렵에는 관수나 약제 살포를 피해야 하며, 시설 하우스에서는 천장을 열어 습한 공기를 배출한 뒤 단아좁

으므로 야간 습도를 낮춰야 한다. 또한 낮 동안에도 가능한 한 실내 습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발병 부위는 잎, 과실, 잎자루에서 주로 확인된다. 과실의 경우 배꼽 부위에서 시작되며, 처음에는 수침상의 병반으로 나타나 황갈색으로 변한다. 진행되면 병반 위에 회갈색 분생포자가 다량 형성된다.



▲잿류프리

▲ 약혼 걱정 없이 안심, PLS에도 걱정없는 ‘잿류프리’

잿류프리는 미생물을 복합 배양해 생성된 유효 성분을 기반으로 한 살균제다. 예방·치료에 모두 효과적이며, 병원균의 세포벽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 기작으로 다른 약제와의 체계 처



리 시 저항성 관리에도 유용하다. 또한 입상수화제 제형으로 약혼이 남지 않아 작물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확 직전에도 처리할 수 있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 신규 작용기작으로 내성 없는 ‘미기와’, 곰팡이병 종합 방제!

잿빛곰팡이병 병원균은 약제 내성이 쉽게 형성되므로, 서로 다른 계통의 등록 약제를 교호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기와는 새로운 작용기작을 지닌 약제로, 잿빛곰팡이병뿐만 아니라 검은별무늬병(흑성병), 갈색무늬병 등 주요 곰팡이병에도 탁월한 방제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병원균의 핵산(DNA) 합성을 교란해 작물 내에서 병의 생장과 증식을 신속히 억제한다. 동시에 2차 전염의 주요 원인인 포자 형성을 차단해 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기존 약제와의 교차저항성이 없어 약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내우성이 강해 시설재배는 물론 노지 재배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촌 마을을 되살리다

국립농업박물관이 오는 10월 28일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박물관을 재개관한다. 2022년 개관 이후 가족과 단체 관람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어린이박물관은 최신 전시 기법을 적용해 농업·농촌 정책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풀어냈다. 이번 개관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농촌 재생 정책’을 체험형 콘텐츠로 구현하며, 농촌을 ‘가능성의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재개관 전시는 어린이가 농촌 마을을 회복시키는 ‘해결사’가 되는 참여형 구조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밭을 일구고 집을 고치며, 이웃과 식물을 돌보고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마을을 밝히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전시는 총 4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빈집 증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의 현실적 문제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부에서는 ‘뚝뚝한 농부’, ‘따뜻한 건축가’, ‘쑥쑥 식물의사’, ‘반짝 에너지 기술사’, ‘하하호호 마을 주민’ 등 다섯 가지 역할을 통해 주가와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자원 보전 등 정책 방향을 체험한다. 3부에서는 집과 학교 등 마을 요소 모형을 조합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을 경험한다. 4부에서는 회색빛 마을이 초록빛을 되찾고, 이웃과 친구들이 돌아오며 마을이 회복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하루 5회 운영되며, 예약은 어린이박물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오경태 관장은 “이번 전시는

농촌의 가능성을 어린이 눈높이에서 재해석해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장”이라며, “어린이는 공동체의 소중함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경험하고, 어른에게는 농촌의 가치와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etimes.com



KRC가 물들이는 세상 행복으로 물드는 미래

한국농어촌공사는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